

Contents

- 전북 독서토론의 교육 효과 _ 4
- 전북 독서토론의 교육 목표 _ 4

- 1. 전북 독서토론 교육의 이론적 배경 _ 5
- 2. 전북 독서토론의 개요 _ 8
- 3. 전북 독서토론의 교육 _ 14
- 4. 전북 독서토론의 실제 _ 18
 - 초등학교 _ 18
 - 중학교 _ 25
 - 고등학교 _ 32



|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전북 독서토론」의 이론과 실재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애써주신 자료개발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론은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며 의사소통 및 협동 능력과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그렇기에 독서를 기반으로 한 토론은 상호 존중의 태도로 공통의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10대 핵심과제로 ‘문·예·체 교육 강화’를 지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고 추천도서 10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및 창조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제1회 독서토론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사고와 사유의 폭이 넓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우리 교육청의 지향점을 담아 전북형 독서토론 교육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수업-학교-교육청 수준에서 토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북 독서토론 모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독서토론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독서토론 교육의 실천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기르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자료집 발간에 크게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독서교육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전북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 거 석

전북 독서토론의 교육 목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민주시민**을 기른다.



전북 독서토론의 교육 효과



[그림 1] 전북 독서토론 교육의 선순환적 유기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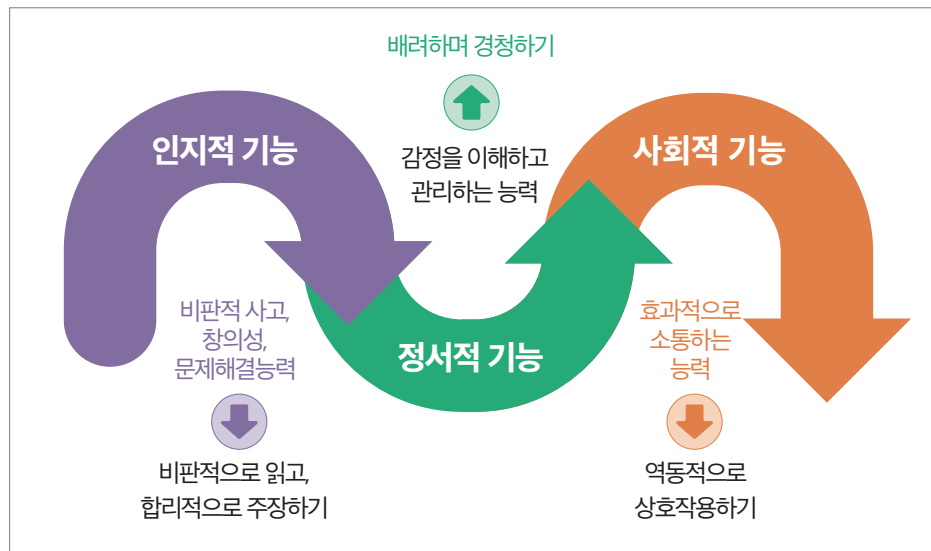
전북 독서토론 교육의 이론적 배경

01

미래 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응의 변화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있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2019)’에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적 선택과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다양성과 이질성·상호 연결성·복합성이 증가하는 미래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긴장과 딜레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하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였다. 학생이 변혁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등을 두루 습득하여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대응은 독서토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학생은 독서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가운데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쟁점을 발견해 내고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는, 학생이 독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사회적 의미 구성으로 확장하여 주제 및 쟁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토론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의 인지적 기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기능을 기를 수 있으며,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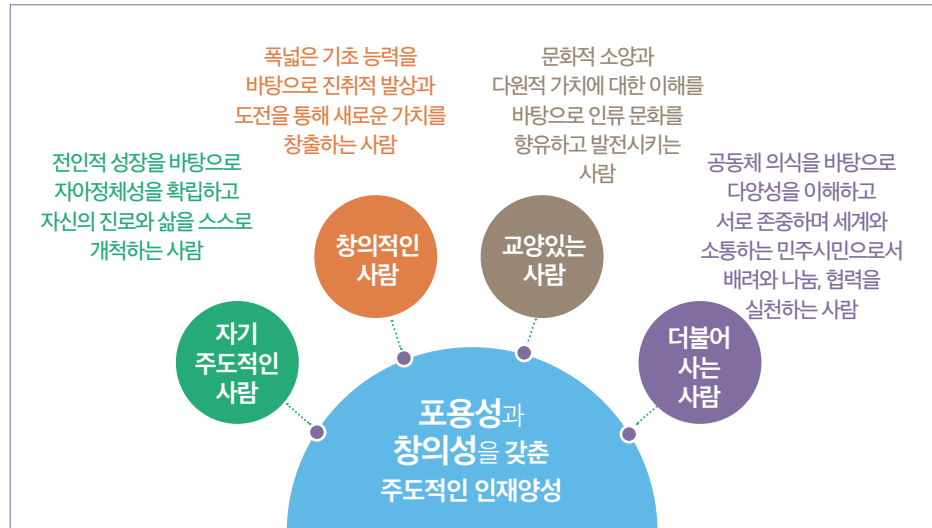


[그림 2] 독서토론과 미래 역량 강화

02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의 변화

2022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2022-33호)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추구하는 인간상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역량	내용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
협력적소통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역량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핵심 역량

0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기에 미래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과정(전북교육 2023-001)에서 추구하는 미래역량은 다음과 같다.



[그림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 & 미래역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목표는 학생을 교육 활동의 중심에 두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독서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협력적 소통 능력을 기르는 등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2

전북 독서토론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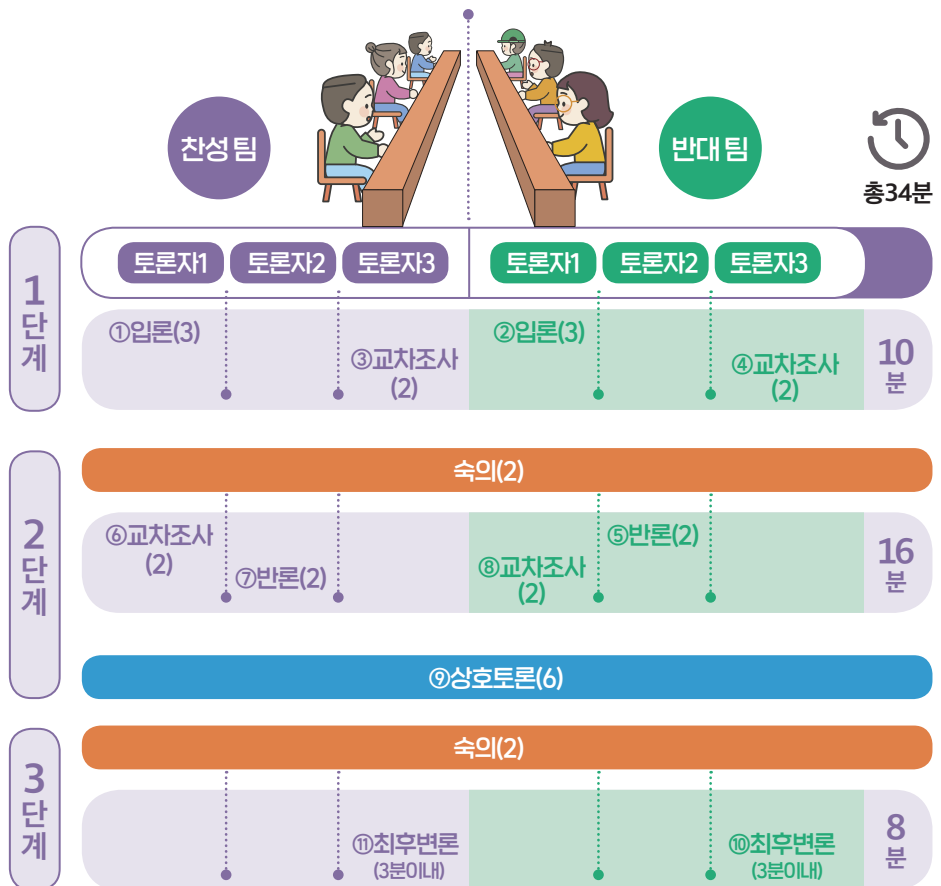
01

전북 독서토론의 개념

전북 독서토론은 독서를 통해 개인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가운데 논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토론을 통해 독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사회적 의미 구성으로 확장하여 논제 및 쟁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수업, 학교, 교육청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전북 토론 모형을 구안하였다. 다양한 토론 방식 중, 2022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반대신문식토론을 기반으로 전북 독서토론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철학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전북 독서토론 모형은 도서를 읽은 후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차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전북 독서토론 모형의 절차



[그림5] 전북 독서토론 모형의 절차

1단계

입론 단계



입론

🕒 3분



첫 번째 토론자

입론은 각 팀의 주장을 일목 요연하게 펼치는 과정이다. 각 팀의 첫 번째 토론자는 입론서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 용어의 정의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교차조사

🕒 2분



세 번째 토론자

1단계의 교차조사는 입론에 대한 교차조사로서, 각 팀의 세 번째 토론자는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 이유, 근거, 개념 등에 대해 질문하며 논리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2단계

반론과 상호 토론의 단계



숙의

🕒 2분

같은 팀 토론자끼리

입론과 교차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 팀의 약점을 파악하거나 우리 팀의 약점을 방어할 근거에 대한 의견을 팀 내에서 교환하는 단계이다. 이때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론을 준비한다.

반론

🕒 2분



두 번째 토론자

반론은 이전 단계에서 파악한 개념, 정보 등의 논리적 오류 등을 활용하여 상대 팀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과정이다. 각 팀의 두 번째 토론자는 반론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에 드러난 오류나 논리적 허점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차조사

🕒 2분



첫 번째 토론자

2단계의 교차조사는 반론에 대한 교차조사로서, 상대 팀의 반론에 대해 논리적인 허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각 팀의 첫 번째 토론자는 상대방의 반론을 듣고 논리적 오류, 모호한 개념, 불분명한 자료 등을 파악하여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토론

⌚ 6분



두 번째 토론자 및 모든 토론자

상호토론은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상호토론을 통해 우리 팀의 주장을 공고히 하고, 상대 팀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다. 이전 과정들이 비교적 엄격한 형식과 제약 하에 이루어졌다면, 상호토론은 모든 토론자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단, 특정 토론자가 1분 이상 발언하는 경우는 사회자가 개입하여 발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찬성 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토론 시작을 위해 30초 이내로 질문한다.
- ② 반대 팀의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답변한다.
- ③ 해당 답변 이후 모든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이상의 과정을 반대 팀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3단계

최후변론의 단계



숙의

⌚ 2분

같은 팀 토론자끼리

토론 내용을 종합하는 가운데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입론·반론과 교차조사, 상호토론에서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 팀의 논리적 취약점(허점)과 우리 팀의 주장, 이유, 근거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팀원 간 의견을 교환한다.

최후변론

⌚ 3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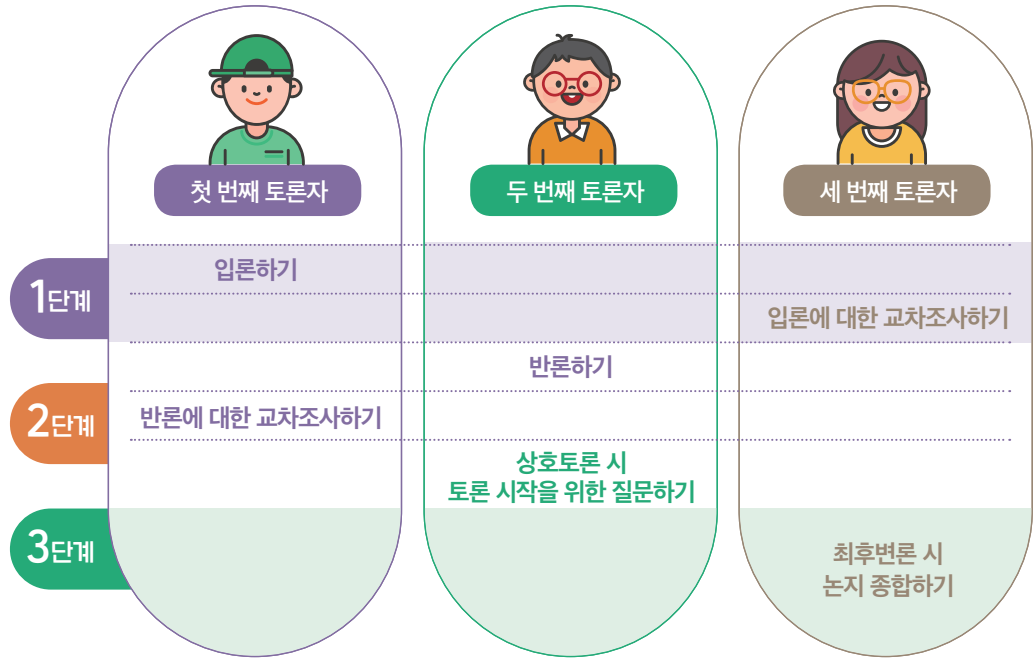
세 번째 토론자

최후변론은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 팀의 논리적 허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팀의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각 팀의 세 번째 토론자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여 우리 팀의 주장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한다.



03

참여자의 역할



[그림 6] 전복 독서토론 모형에서의 참여자 역할

04

모형 구성을 위한 독서토론의 원리



하나, 사고력 확장의 원리

독서활동을 통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원리



둘, 배려적 태도의 원리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며,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원리



셋, 역동적 상호작용의 원리

자신의 주장, 이유, 근거를 분명히 하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 교차 조사하여 질문과 반론을 하고, 상대의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원리



05

전북 독서토론모형의 특징 및 효과

- 독서활동을 통해 주장과 이유, 근거를 찾아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입론 및 반론에 대한 교차조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 숙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 상대의 의견을 종합하는 가운데 통합적인 사고를 추구한다.



사고력
확장



- 참여자들의 고른 참여와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존중과 배려를 실천한다.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의 바른 표현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배려적
태도

- 모든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교환을 추구한다.
- 상호토론을 통해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역동적
상호작용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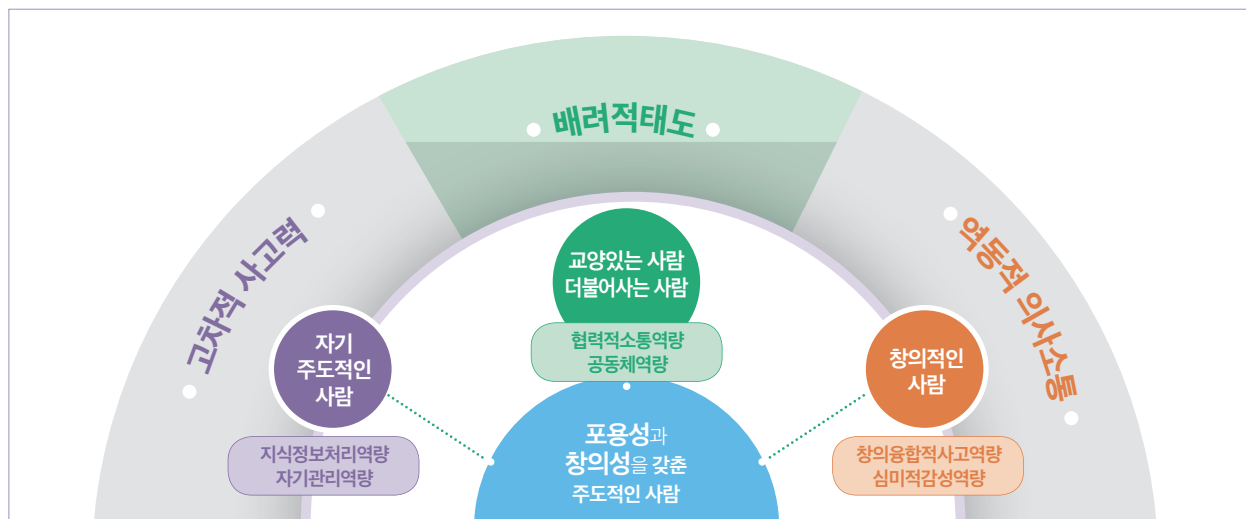
2022 교육과정의 반영

2022 교육과정은 사회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개정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융합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공동체역량, 자기관리역량, 협력적소통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한다. 전북독서토론 모형은 미래사회 교육의 국제적 지향점을 기반으로 2022 교육과정의 목표 및 인간상,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전북독서토론 모형은 독서토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2022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핵심역량은 범교과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국어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살펴 다음 [표 2], [그림 7]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고차적 사고력, 배려적 태도, 역동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했다.

성취기준	성취기준 설명 및 핵심역량 연계내용
[6국01-07]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학생들이 각각 찬성 또는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 절차와 규칙에 따라 토론에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관리역량, 협력적소통역량을 기른다.

성취기준	성취기준 설명 및 핵심역량 연계내용
[9국01-08] 토론에서 반론을 고려하여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토론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 이유,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고려하여 논증을 구성한다. 그리고 상대의 주장, 이유, 근거가 타당하지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융합적사고역량을 기른다.
[9국05-05]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표현 등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의 깊이와 넓이를 늘리고, 작품과 사회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등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을 기른다.
[10공국2-02-03]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의미 있는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삶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독서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심미적 감성역량 및 공동체역량을 기른다.
[12독토01-02] 대화, 토의, 토론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독서 토론을 한다.	학습자가 책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독서 토론의 목적이나 주제를 고려하여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상호 작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관점과 해석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습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갖춘다.
[12독토01-06] 사회적인 현안이나 쟁점이 담긴 책을 읽고 독서 토론하고 글을 쓰며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담론에 참여한다.	공동체 문제와 관련된 현안이나 쟁점 분석,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능력과 미래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표 2] 전복독서토론 모형에 반영된 2022 교육과정 국어과 성취기준



[그림 7] 2022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기반 전복독서토론 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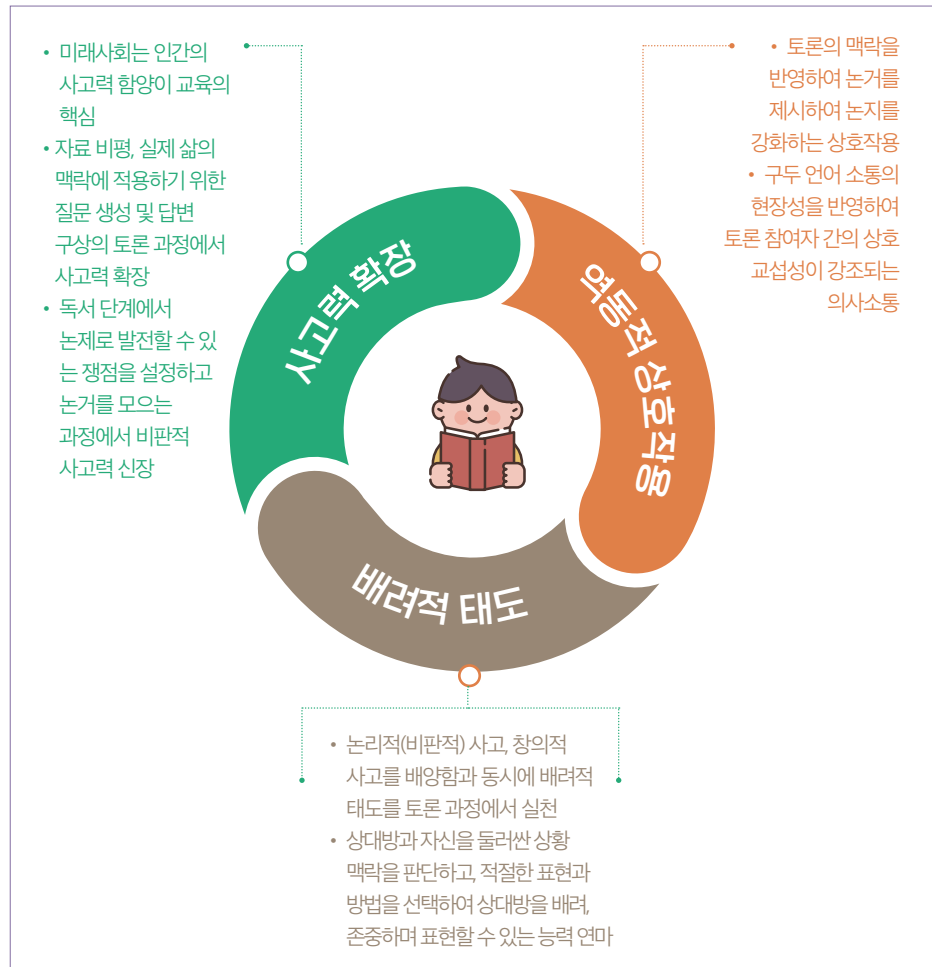


전북 독서토론의 교육

01

지향점

전북 독서토론은 선정된 도서에서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모아 사고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준비된 것을 발표하는 독서토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시되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경쟁식 독서토론의 언쟁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실천하는 것이 전북 독서토론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이러한 지향점을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전북 독서토론 교육 지향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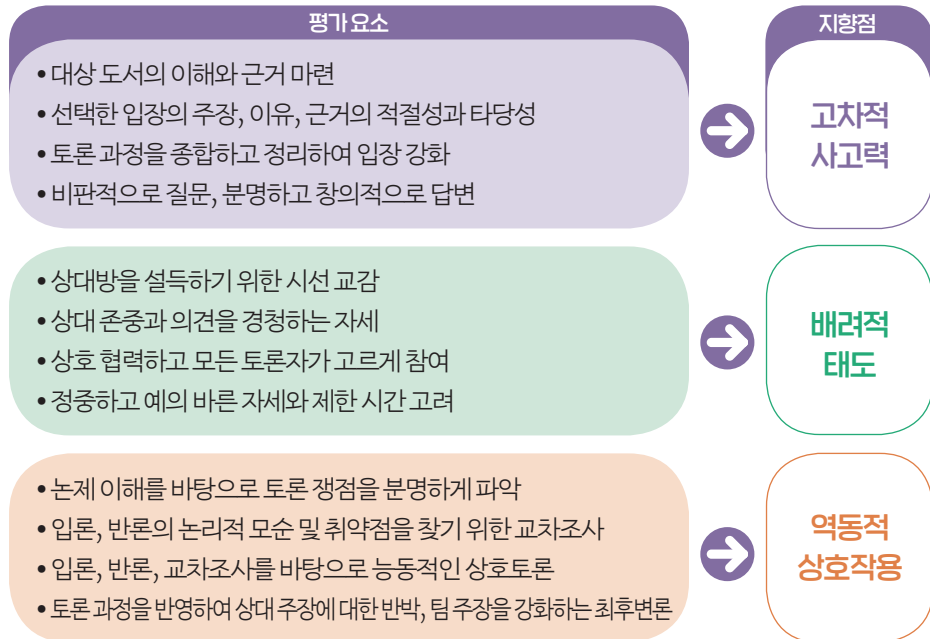
전북 독서토론 교육의 진행 과정

준비	수행	정리
도서 선정 및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을 탐구하고 성찰하며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도서를 교사와 학생이 선정하여 읽는다. - 선정된 도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며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의미를 구성하며 읽는다. 	모둠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과 관점을 가진 구성원과 함께 모둠을 구성한다. - 모둠원과 함께 협력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준비와 수행 과정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한 도서와 구성된 논제가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 선정된 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독서토론 과정에서 그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였는지 점검한다. - 우리 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로 입론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논제에 대해 자기 팀의 입장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었는지 점검한다. - 우리 팀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 팀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에 충분한 독서토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북 독서토론의 특징과 평가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점검한다. - 전북 독서토론의 지향점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판단한다.
논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협력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논제를 구성한다. - 삶을 탐구하고 성찰하며 자신과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문제를 찾아 논제로 구성한다. 	입장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확립한다. - 우리 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협력적으로 구성하여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상대 팀을 설득할 수 있게 논리를 세운다. 	
입론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에 대한 우리 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협력적으로 구성하여 논리를 세운다. - 도서와 쟁점에 대한 이해, 배경과 용어 정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입론서를 작성한다. 	전북 독서토론 모형 활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독서토론 모형의 특징과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 팀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 - 전북 독서토론의 지향점을 독서토론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실천한다. 	

[표 3] 전북 독서토론 교육의 진행 과정 <예시>

03

전북 독서토론의 평가 요소



04

전북 독서토론의 평가 기준 예시

공통

도서 활용

토론 과정에서 대상 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가?

화 면 태 도

자신의 말로 발언하며 말의 속도, 크기, 어조 등이 적당한가?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토론에 임하고, 상대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가?

시간 준수

시간을 잘 지키며 발언하는가?

1 단계

인 제

논제가 등장한 배경이나 용어 정의를 잘하는가?

토론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가?

타당하고 참신한 주장을 적절한 이유나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가?

교 차 주 사

상대 팀 입론의 논리적 모순점이나 취약점을 잘 파악하여 질의하는가?

상대 팀의 질의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가?

질의의 논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답변하는가?

2 단계

반론

- 상대 팀이 주장한 입론의 내용을 이해하여 반론하고 있는가?
- 상대 팀이 주장한 입론의 논리적 모순이나 취약점을 잘 파악하여 질의하는가?
- 상대 팀이 주장한 교차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반론하고 있는가?
- 상대 팀이 주장한 교차조사의 논리적 모순이나 취약점을 잘 지적하는가?
-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을 활용해 본인 팀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가?

교차조사

- 상대 팀 반론의 논리적 모순점이나 취약점을 잘 파악하여 질의하는가?
- 상대 팀의 질의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가?
- 질의의 논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답변하는가?

강변박론

- 상대 팀의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모순점이나 취약점을 잘 지적하는가?
- 상대 팀의 질의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가?
- 질의의 논점을 파악하여 우리 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답변하는가?
- 우리 팀의 모든 발표자가 고르게 참여하는가?

3 단계

최악의반론

- 토론 과정을 종합하여 우리 팀의 주장, 이유,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입장을 강화하는가?
- 우리 팀의 주장이 명확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하는가?
- 상대 팀 주장이 자신의 팀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하는가?

※ '독서토론한마당'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북 독서토론의 실제

※ 전북 독서토론 모형에 맞추어 독서토론의 일부분을 제시하였음

초등학교

01

입론

입론은 선정 도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주장에 따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대본을 보고 읽기보다는 상대 팀을 보고 발언한다.



『긴긴밤』루리 저/문학동네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노정래 저/다른

논제

동물원은 필요하다

서론

배경 설명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은 과연 동물들에게 이로울까요? 2023년 3월에는 얼룩말 ‘세로’가 8월에는 암사자 ‘사순이’가 동물원을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각각 생포되고 사살되었습니다. 동물원이 동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다면 동물들이 탈출하였을까요?

용어정의

우선 핵심어인 ‘동물원’이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동물을 사육하고, 관람시키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주장

우리는 이번 주제 ‘동물원은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토론자

이유1

첫째, 동물원은 동물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1

야생 코뿔소 ‘노든’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광활한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동물들이 좁은 우리에서 무기력한 하루를 보냅니다. 방사장은 장시간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동물의 종족 번식 본능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유2

둘째, 동물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2

‘긴긴밤’에서 사람들은 혼자남은 노든을 걱정하기보다 ‘마지막 남은 흰 바위 코뿔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동물원의 인지도와 수익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원의 체험으로 인해 온종일 사람이 만지고 간토끼 중 한두 마리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안전보다 사람의 호기심을 채워 수입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유3

셋째, 동물은 야생성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3

‘긴긴밤’ 속 양가부는 동물원에서 나고 자라 발 구르기와 조준이 서툰다. 뉴스에선 대구 동물원의 백사자가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넓은 초원을 뛰어다녀야 할 동물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져 스스로 먹이를 찾고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브롱크스 동물원도 사자의 행동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크기입니다.

동물은 그에 알맞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서식지에서 동물답게 스스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동물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품화시켜, 야생성을 잃어가는데도 동물원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물원은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토론자

02

교차조사

입론을 들으면서 바로 이어질 교차조사에서 질문하기 위해서는, 양 팀의 입론을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 질문자는 상대 팀의 발언을 잘 듣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잡아내 질문해야 한다. 토론자들은 상대 상대 팀의 주장과 근거를 펼치며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 교차조사의 예시는 위 입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교차조사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유형으로는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비판적 질문,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등이 있다.

반대 팀에서 동물원이 동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전주동물원을 가본 적이 있나요? (예)
▶ 그렇다면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것은 동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
▶ 푸바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수입을 동물을 위해 사용한다면 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세 번째 토론자

03 숙의

‘긴긴밤’에서 쓰러져 있는 노든을 누가 치료하였나요?
▶ 그렇다면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세 번째 토론자

상대 팀의 주장을 잘 듣고 정리하며 우리 팀이 유리해지도록 팀원들끼리 소통하며 협의한다.
토론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논리를 제시하며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상대 팀은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야생동물보호소가 더 적절한 곳임을 제시하자.



첫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생태동물원으로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이 있음을 주장하자.

펭귄이 빠르게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근거로
스트레스받는 동물을 강조하자.



세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최근 뉴스를 근거로 멸종위기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역설하자.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 보전은 DMZ 반달가슴곰의
자연 번식 예와 동물원 대신 CITES 동물보호시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자.



첫 번째 토론자

04

반론

서론

상대 팀이 주장한 입론과 교차조사를 통해, 상대 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찬성과 반대의 예상되는 주장을 생각해 보고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 팀 약점이나 한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교차조사에 대비한다.

상대 팀은 동물원의 사육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물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주장으로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존한다. 생태교육을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상대 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론

첫 번째 주장으로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보호는 야생동물보호소라는 전문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은 다양한 동물들은 사육하여 관람시키기 위한 곳으로 제한된 공간에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사육사들의 업무도 많은데 다양하고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종 보전은 자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DMZ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었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야생에서 자연 번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에서도 종 보전이 충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법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동물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

제1차

세 번째 주장으로 동물원은 생태교육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가두어진 동물이 아닌 자연에서 야생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동물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의 동물 체험행사로 인해서 오늘도 동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제2차

사람들에게 집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동물원의 작은 방사장은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불편한 곳입니다. 전주동물원의 사육사님도 제한적인 공간으로 인해 거의 모든 동물이 정형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사장이 작아 사람들의 시선이 고통스러워도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원은 필요하다'에 반대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

05

최후변론

토론 전체의 과정에서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쟁점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정리한다. 최후변론은 우리 팀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속담이나 격언, 비유 등을 통해 인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서론

여러분 우리 팀은 '동물원은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긴긴밤'의 노든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듯이 동물을 좁은 우리 속에서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게 하는 것은 동물에게 지루한 삶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위해서 할 일은 동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론자

과제

상대 팀에서는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경동물원의 '갈비 사자' 바람이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동물원이 멸종위기 동물을 보전한다면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최소한 야생에서 누리는 수명보다는 더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사자 25마리가 죽었습니다. 그중 20마리는 질병, 사고사, 안락사로 죽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20마리의 사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팀에서는 동물원은 멸종위기 동물을 상품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후에 맞지 않는 동물원에서 거북이와 사막여우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동물원 부빠 TV에서 푸바오는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상품으로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판다 머리띠를 하며 SNS에 올릴 사진만 찍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서 동물의 본성에 맞게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많은 동물원이 생태동물원으로 변화하고 있어도 여전히 동물들은 정형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해나간다고 해도 동물원의 환경은 동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우리와 말과 행동이 다른 동물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동물원에서 기르는 것은 동물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원은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전주MBC 독서토론 한마당
초등 4강



세 번째 토론자

중학교

실전 독서토론에 필요한 입론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선정 도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제에 따른 배경 설명과 용어 정의 그리고 우리 팀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입론을 작성하도록 한다.



『유튜브 쫄 아는 10대』 금준경 저/폴빛

『유튜브 괴담』 박현숙 저/꿈꾸다

논제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서론

배경 설명

오늘날 많은 사람의 하루 시작과 끝은 미디어와 매우 밀착되어 있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미디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무언가를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미디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용어정의

1인 미디어란, 인터넷 동영상, SNS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 취향에 맞춘 차별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장

저희는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에 반대하며, 그에 따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이유1

첫째, 1인 미디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함보다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1

<유튜브 쏘아는 10대> 122쪽 내용에 의하면 엘사, 미키마우스 같은 아동 프로그램에도 선정적 영상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심각한 트라우마가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YTN 사이언스 2023.08.29 기사에서는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기만 해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것을 의미하는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유2

둘째, 1인 미디어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2

<유튜브 괴담> 74쪽에서는 소수의 비상식적인 유튜버들 때문에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를 격하시키는 문제에 대해 다룬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쏘아는 10대> 103쪽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자료만을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현상인 필터 버블로 인하여 편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3

셋째, 1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3

방송 통신 당국은 해묵은 방송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유튜브 쏘아는 10대> 210쪽에서 소개한 혐오 발언에 대한 차별 금지법 제정 대안이 논의 중인 만큼 체계적인 규제를 다양하게 마련한다면 법적 규제를 통해 더 나은 1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장 정리

이처럼 저희는 1인 미디어가 유해한 정보를 노출할 위험성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

02

교차조사

양 팀의 입론이 끝나면 상대 팀 입론에 대한 논리의 허점과 근거의 타당성 등을 잘 파악하여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론 독서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쪽 입장을 다 준비하기 때문에, 양쪽 입론에 따른 예상질문과 답을 미리 준비하면 교차조사를 진행할 때 비교적 수월하다.

다음 교차조사의 예시는 위 입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교차조사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유형으로는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비판적 질문,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등이 있다.

- 반대 팀에서 1인 미디어를 통해 유익한 정보보다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다고 주장하셨는데, 유익한 정보와 유해한 정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 오히려 1인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일까요?
- 욕설이나 선정적인 내용 등의 부정적인 부분은 꼭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상대 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토론자

03

숙의

숙의 시간은 팀의 단합력과 순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간은 일명 작전 시간으로 앞선 토론을 통해 드러난 상대 팀 근거의 허점을 찾고 이후 반론의 방향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다. 숙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숙의를 이끌 토론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다.

1인 미디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도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용 자료를 제시하자.



첫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상대 팀이 1인 미디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알고리즘의 필터 버블로 인해 편향적인 가치관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론하자.

1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사익까지 추구하려는 사람들도 있음을 강조하자.



세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미디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자.

04

반론

숙의 시간에 논의된 방향을 바탕으로 반론을 진행한다. 반론에서는 상대 팀이 제기한 주장이나 이유, 근거 등을 메모하여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찾고 공격해야 하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반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 팀이 내놓을 만한 반론 목록을 미리 준비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론

찬성 팀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상대 팀께서는 1인 미디어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가 적절한 규제 안에서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며, 만약 그런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간과한 것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대 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 찬성 팀은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00일보 고00 과장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에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쉽게 목소리를 낼 때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것이 꼭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1인 미디어를 통해 배움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팀도 1인 미디어를 통해 배움의 기회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생산되는 모든 콘텐츠가 믿을만하고 유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쫄 아는 십대> 103쪽에서는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자료만을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필터버블로 인해 오히려 편향적인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움 이전에 미디어 생산자가 어떤 콘텐츠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

피해자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쫄 아는 십대> 82~88쪽에서도 지적하듯이 요즘은 선정적인 영상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1인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면 선한 영향보다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저희 팀은 위와 같은 근거로 1인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

05

최후변론

최후변론은 우리 팀의 주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부각하고, 우리 팀 주장이 상대 팀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토론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주장과 관련된 속담이나 명언, 비유 등을 통해 인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서론

최후변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독서토론의 논제는 '1인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였습니다. 상대 팀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토론의 논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론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어 표현의 자유가 갖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허용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위험이 생겨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팀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

먼저 상대 팀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배우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저희 팀에서는 1인 미디어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함보다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1인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을 억제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팀에서 질문하신 정보의 유해성의 기준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미성년자들은 물론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은 분명 유해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오직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생산해 낸다면 인터넷 생태계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의 중심에는, 1인 미디어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생산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면, 그가 제공하는 정보와 사람들의 소통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최근 안전한 규제들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법적 규제는 당연하고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1인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



전주MBC 독서토론 한마당
중등 4강

01

입론

고등학교

토론의 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상대 팀의 반론과 교차조사가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므로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작별인사』 김영하 저/복복서가

논제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서론

배경 설명

『작별인사』에서 발전을 거듭한 인공지능은 인류 이후의 시대를 이끍니다. 기술이 진보하고 과학이 고도화된 사회의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하는 우리가 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사회에서 인간이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도 그 과정의 일부일 것입니다.

용어 정의

저희는 토론에 앞서 인공지능에 대해 정의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과 정서를 학습해 표현할 수 있는 기계'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책 속 하이퍼리얼 휴머노이드인 철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주제를 달리 말하자면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과 정서를 가진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장

저희 반대 팀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이유1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1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의무의 경우 인공지능의 범죄를 인공지능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제작한 인간에게 묻습니다. 책에서도 휴머노이드를 재산이라 여깁니다. 인공지능을 존중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2

둘째,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2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듯,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로 특정한 목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인간에 종속된 수단으로써 존재합니다. 책 속 철이 또한 인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3

셋째,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근거3

인간의 유한성과 필멸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가치를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책 속 철이는 본인을 인공지능이라 자각한 이후부터는 인간의 유한성을 근간으로 하는 소설, 영화 등의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장 정리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근간이 수단적 존재이며, 인간처럼 유한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

02

교차조사

입론을 들으면서 바로 이어질 교차조사에서 질문하기 위해서는, 양팀의 입론을 준비하면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철학적 근거, 학술적 근거, 의견 자료 등 폭넓게 준비하여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질문자는 상대 팀의 발언을 잘 듣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잡아내 질문해야 한다. 토론자들은 상대 팀의 주장과 근거를 필기하며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 발표자를 위하여 준비한 질문과 토론하며 만든 질문을 건네주며 도와줄 수도 있다.

- '법적 책임의 주체'가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인간(예: 미성년자, 장애인 등)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배운 감정은 진정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성이 그러한 것이지만, 현실 사회에서 대부분 인간이 진정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아무리 수단적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책 속의 철이처럼, 삶의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실존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토론자

03

숙의

다음 단계를 대비하여 상대 팀의 약점과 반론 내용, 우리 팀의 약점을 방어할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하는 단계이다. 짧은 시간이기에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의 시간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반론에서 상대 팀의 논지 중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처음에 배치하자.



첫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최후반론에서 마지막은 인간의 유한성과 필멸성에 대한 것을 다시 강조하자.

상대 팀의 논거 중에서 '특정 분야의 일'에 대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인간 '전체'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자.



세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

인간의 '주체성', '도덕적 성찰'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고, 인공지능은 불가능함을 주장하자.



첫 번째 토론자

우리 팀 논지에서 인간만이 가지는 '필멸적'인 존재라는 측면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가 나타남을 역설하자.

04

반론

반론은 상대 팀의 입론에서 드러난 약점, 논리적 허점을 비판함으로써 상대 팀의 주장을 약화하고 우리 팀의 논증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토론 전 준비 단계에서 예측하여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

서론

찬성 팀에서는 몇몇 사례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일자리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팀의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팀 입론에 대한 반박

상대 팀에서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의 일을 인간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그것이 인공지능이 수단적으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전체를 대체하지 않으며, 주체적이고 도덕적 성찰을 하는 인간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인지 강화

저희는 인간의 역할은 단순 노동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내면의 기능, 즉 마음의 작용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고민하며 혹은 스스로 고민하며 도덕적 성찰을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 입론에 대한 반박

또한, 상대 팀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대체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이는 기술 발전에 적응하지 못했기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역할을 하며, 인간의 모든 역할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저희는 인간 본연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주체적 존재이며 필멸적 존재로 문학 작품이나 소설, 영화 이러한 것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선택하며 결정 내린 것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토론자

05

최후변론

우리 팀의 논지를 요약하고, 강점인 논지를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단계이다. 비유적 표현, 단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논지를 강조하거나 토론의 의의를 짚어내어 우리 팀 논지의 가치를 부각할 수 있다. 상대 팀의 약점에 대해 다시 강조하며 우리 팀의 논리적 우위를 드러낼 수 있다.

저희 양 팀은 책 작별인사를 읽고 고도로 발전해 가는 과학 기술에 대비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 팀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책 속 '휴머노이드'인 철이를 예로 들었고, 인간 수준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갖춘 기술, 기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한 정의 아래 인공지능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점과 인공지능의 수단성, 불멸성을 근거로 하여 이번 논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하게 토론이 이루어진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찬성 팀에서는 인간 능력 대체로 인한 인간 능력이 퇴보하고 있고, 인간 일자리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물리적 수준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

하지만 저희는 이번 토론의 의의는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확대되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적으로 이런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확립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가 될 수 없고, 발전하는 로봇에 대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 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불멸의 몸을 얻게 된 철이는 소설, 영화와 같은 인간적 가치에 회의를 가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인간에 대한, 이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은 시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수단성과 불멸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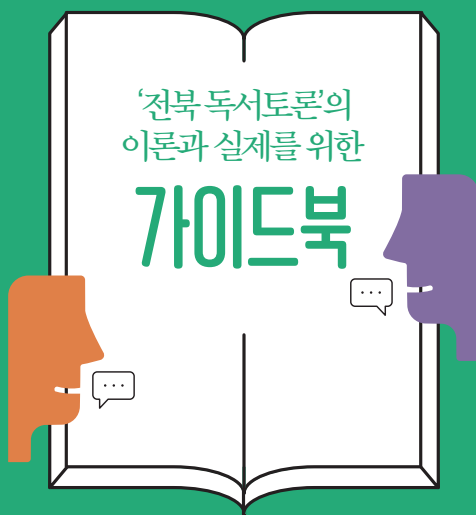


세 번째 토론자



전주MBC독서토론 한마당
고등 결승전





총괄

이 서 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기획 및 검토

나 화 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박 정 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집필 및 검토위원

박 영 민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 현 석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배 기 웅 | 군산창오초등학교 교사

최 효 성 | 부안초등학교 교사

이 시 온 | 비룡초등학교 교사

황 미 경 | 전주화정초등학교 교사

김 선 경 | 용복중학교 교사

이 혜 숙 | 익산부송중학교 수석교사

이 선 아 | 전주화정중학교 교사

송 윤 정 | 고창고등학교 교사

이 혜 영 | 산서고등학교 교사

김 병 관 | 원광보건고등학교 교사

김 주 희 | 인현고등학교 교사

신 지 연 | 인현고등학교 교사

박 효 주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발행일 2024.3.31.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우) 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